



RICON 건설경기실사지수 (SC-BSI)

이은형 (연구위원, eunhyung@ricon.re.kr, 02-3284-26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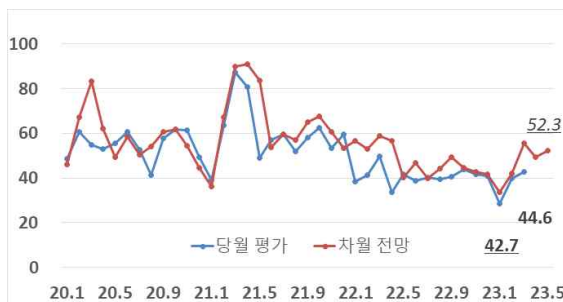
I. 2023년 4월 건설경기평가 및 5월 전망

■ 4월의 경기평가는 개선세가 멈추며 전월과 유사, 5월은 개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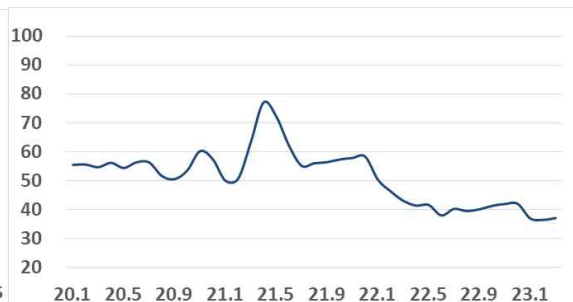
- 4월의 건설경기실사지수는 44.6로 전월(42.7)과 유사했지만(+1.9p), 차월인 5월의 전망치(52.3)는 개선될 것으로 나타남. 응답 업체들의 경영상 애로사항으로 기능인력의 수급난이 크게 부각되었고 건설생산체계의 개편에 따른 업역충돌도 주요사안으로 지적됨.
- 수도권은 45.7(40.4→45.7)로 상승(+5.3p), 지방은 44.3(43.5→44.3)으로 전월의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됨(+0.8p).

〈표-1〉 2023년 4월 건설경기실사지수 평가 및 2023년 5월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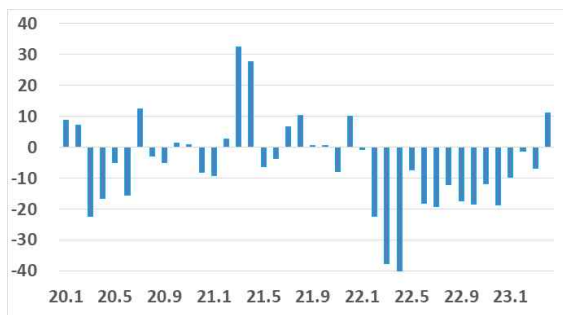
구분	종합		지역			
	금월	전년 동월	수도권	지방	서울	광역시
2023년 4월 평가	44.6	33.5	45.7	44.3	33.3	52.4
2023년 5월 전망	52.3	40.3	56.5	50.8	50.0	6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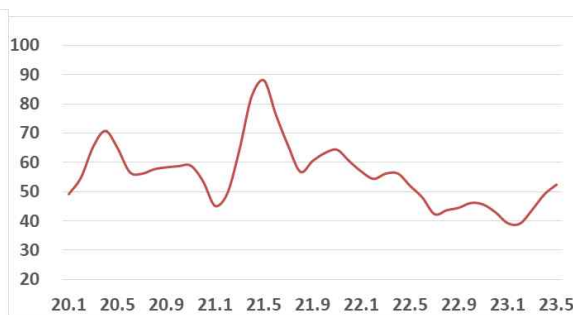
〈당월 평가 및 차월 전망 추이〉



〈당월 평가의 이동평균선(3개월)〉



〈전년 동월 대비 증감(당월 평가)〉



〈차월 평가의 이동평균선(3개월)〉

II. 전문건설업 조사항목별 경기평가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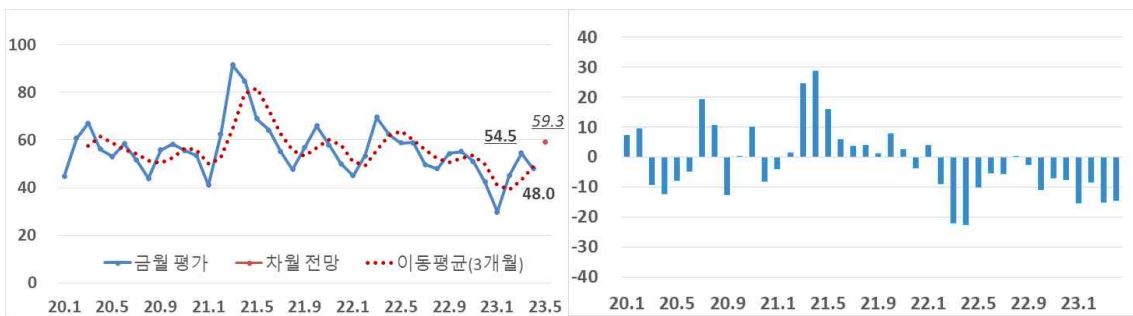
1 공사수주지수 (원도급, 하도급)

■ 공사수주지수는 원도급은 소폭 하락, 하도급 전월 수준

- 공사수주 경기실사지수는 원도급수주가 48.0(54.5→48.0)로 전월 대비 소폭 하락했으며(-6.5p), 전년 동월과는 큰 차이를 보였음. 하도급수주는 50.3(51.1→50.3)으로 전월과 유사했으며(-0.8p) 전년 동월 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이었음.
- 원도급 공사수주지수는 수도권(55.3→47.8)에서 전월보다 하락했으며(-7.5p), 지방(54.2→48.1)에서도 비슷한 폭의 하락을 보였음(-6.1p).
- 하도급 공사수주지수는 수도권(66.6→65.2)은 전월과 비슷했으며(-1.4p), 지방(45.8→45.0)도 역시 전월과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0.8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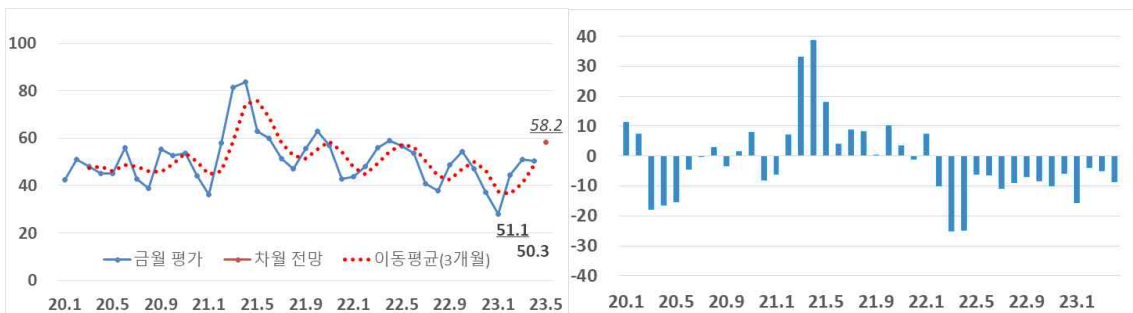
〈표-2〉 원·하도급 공사수주지수 (금월 평가와 차월 전망)

구 분		총 합		지 역			
		금월 (전월)	전년 동월	수도권	지방	서울	광역시
원도급 수주	2023년 4월 평가	48.0	65.2	47.8	48.1	36.7	50.8
	2023년 5월 전망	59.3	63.9	76.1	53.4	66.7	63.5
하도급 수주	2023년 4월 평가	50.3	58.8	65.2	45.0	50.0	55.6
	2023년 5월 전망	58.2	57.1	69.6	54.2	60.0	61.9



〈원도급 수주〉

〈하도급 수주〉



〈원도급 수주 증감(전년 동월비)〉

〈하도급 수주 증감(전년 동월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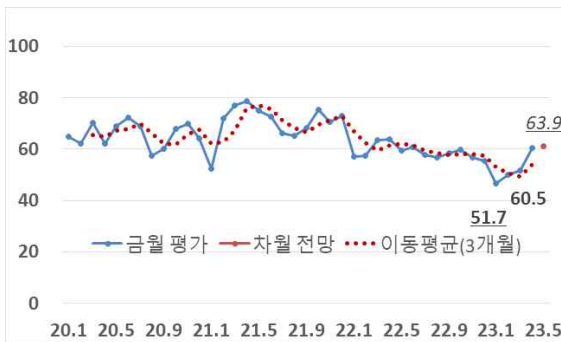
2 자금관련지수 (공사대금수금, 자금조달)

■ 공사대금수금지수는 크게 개선, 자금조달지수도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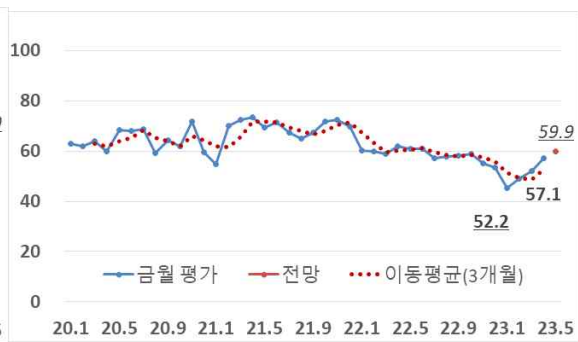
- 공사대금수금 경기실사지수는 60.5(51.7→60.5)로 전월보다 크게 개선(+8.8p), 차월인 5월의 전망치(61.0)는 금월과 유사한 수준일 것으로 나타남.
 - 수도권(44.7→56.5)은 전월 대비 대폭 개선(+11.8p), 지방(54.2→61.8)에서도 전월에 이어 개선세가 지속됨(+7.6p).
- 자금조달 경기실사지수는 57.1(52.2→57.1)로 소폭 개선되었으며(+4.9p), 차월에는 전년 동월(61.8)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됨.
 - 수도권(46.8→52.2)은 최근의 하락세가 멈추고 소폭 반등했으며(+5.4p), 지방(54.2→58.8)은 전월에 이어 개선세가 지속됨(+4.6p).

〈표-3〉 공사대금수금 및 자금조달 지수 (금월 평가와 차월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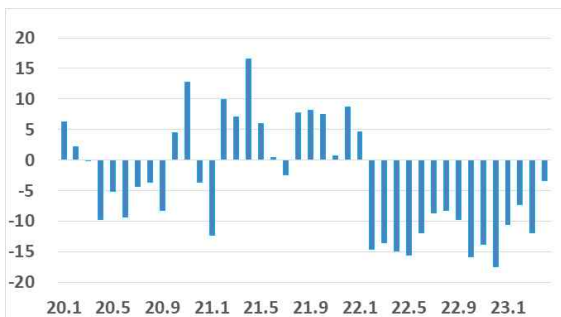
구 분		총 합		지 역			
		금월	전년 동월	수도권	지방	서울	광역시
공사대금수금	2023년 4월 평가	60.5	63.9	56.5	61.8	53.3	68.3
	2023년 5월 전망	61.0	63.9	65.2	59.5	60.0	74.6
자금조달	2023년 4월 평가	57.1	61.8	52.2	58.8	46.7	66.7
	2023년 5월 전망	59.9	61.8	58.7	60.3	53.3	7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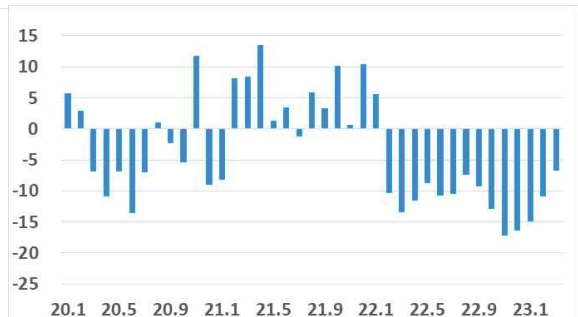
〈공사대금수금〉



〈자금조달〉



〈공사대금수금 증감(전년 동월비)〉



〈자금조달 증감(전년 동월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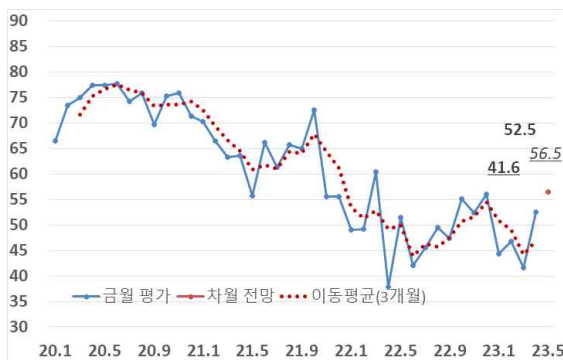
3 건설기능인력 관련 지수 (인건비, 인력수급)

■ 인건비체감은 크게 개선, 기능인력수급도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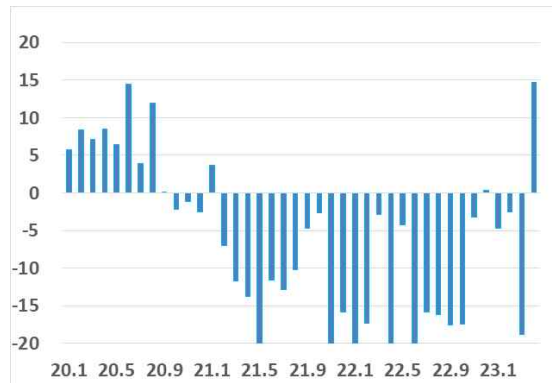
- 인건비체감¹⁾ 경기실사지수는 52.5(41.6→52.5)로 크게 개선되었으나(+10.9p), 이는 전문건설업체들이 응답한 전년 동월(37.8)의 체감도가 이례적으로 저조했다는 점을 감안해서 받아들여야 함. 참고로 이번 조사에서도 적지 않은 업체들이 현장작업자들의 인건비 상승요구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답했음.
 -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36.2→39.1)에서는 전월과 큰 차이가 없었던 반면(+2.9p), 지방(43.5→57.3)에서는 크게 상승한 것으로 조사됨(+13.8p).
- 기능인력수급 경기실사지수²⁾는 66.7(57.9→66.7)로 전월보다 개선되면서(+8.8p) 전년 동월(55.4)보다도 높은 조사치를 보였음. 그렇지만 이 부분도 전반적인 현장상황이 개선된 것이 아닌 현장별·공종별 인력수급 상황이 조사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함. 여전히 적지 않은 응답업체들이 기능인력의 수급난을 지적하는 것이 근거임.
 - 수도권(46.8→54.3)의 일부 개선세를 보였으며(+7.5p), 지방(61.8→71.0)에서 상대적으로 큰 폭의 지수 상승이 조사됨(+9.2p).

〈표-4〉 인건비 및 기능인력수급 지수 (금월 평가와 차월 전망)

구 분		총 합		지 역			
		금월	전년 동월	수도권	지방	서울	광역시
인건비 체감	2023년 4월 평가	52.5	37.8	39.1	57.3	30.0	66.7
	2023년 5월 전망	56.5	46.4	52.2	58.0	40.0	63.5
인력수급	2023년 4월 평가	66.7	55.4	54.3	71.0	50.0	76.2
	2023년 5월 전망	66.1	57.9	50.0	71.8	36.7	76.2



〈인건비 체감 (개선·악화정도)〉



〈인건비 증감(전년 동월비)〉

1) 기능인력을 채용하는 기업들이 체감하는 인건비 수준의 체감도(개선 또는 악화)를 의미함

2) 동 항목은 '21.1부터 신규로 추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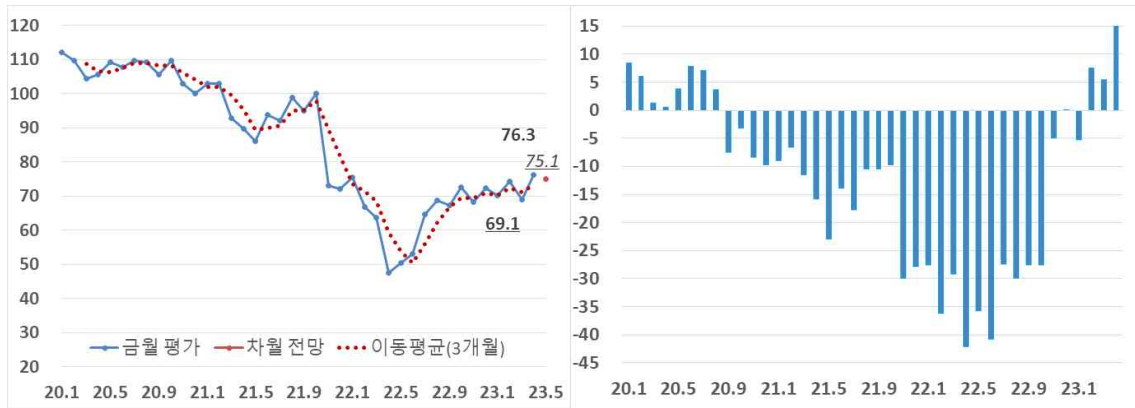
4 건설자재 관련 지수 (자재비, 자재수급³⁾)

■ 자재비지수와 자재수급지수 모두 개선

- 자재비⁴⁾ 경기실사지수⁵⁾는 43.5(34.3→43.5)로 개선되었으며(+9.2p), 차월의 전망(51.4)도 지속 상승할 것으로 나타남. 그렇지만 전년 동월(15.0)의 심각했던 자재비 상승과 함께 금년의 착공물량 감소 등을 감안하면 업황의 반전으로 평가하기는 부족한 상황임.
 - 수도권(29.8→45.7)은 전월보다 크게 개선되었으며(+15.9p) 지방(35.9→42.7)도 전월보다 개선된 것으로 조사됨(+6.8p).
- 자재수급 경기실사지수는 76.3(69.1→76.3)으로 전월보다 상승했지만(+7.2p), 레미콘 등 일부 공사자재를 중심으로 자재수급의 어려움을 지적하는 응답업체들이 여전하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수도권(66.0→71.7)은 전월보다 소폭 개선되었으며(+5.7p), 지방(70.2→77.9)도 유사한 양상을 보였음(+7.7p).

〈표-5〉 자재비 및 자재수급 지수 (금월 평가와 차월 전망)

구 분		총 합		지 역			
		금월	전년 동월	수도권	지방	서울	광역시
자재비 체감	2023년 4월 평가	43.5	15.0	45.7	42.7	36.7	63.5
	2023년 5월 전망	51.4	21.0	58.7	48.9	50.0	63.5
자재수급	2023년 4월 평가	76.3	47.6	71.7	77.9	66.7	82.5
	2023년 5월 전망	75.1	51.1	65.2	78.6	56.7	84.1



〈자재수급〉

〈자재수급 증감(전년 동월비)〉

3) 통상적으로 자재수급지수는 타 항목의 지수보다 높게 나타남. 그 이유는 전문건설업체들이 하도급 공사의 특성에 따라 발주자나 종합 건설업체로부터 자재를 지급받는 경우도 많고, 실무적으로도 자재를 조달하지 못해 공사를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은 드물기 때문임.
 4) 기업들이 구매하는 자재비의 체감수준(개선 또는 악화)을 의미함
 5) 동 항목은 '21.1부터 신규로 추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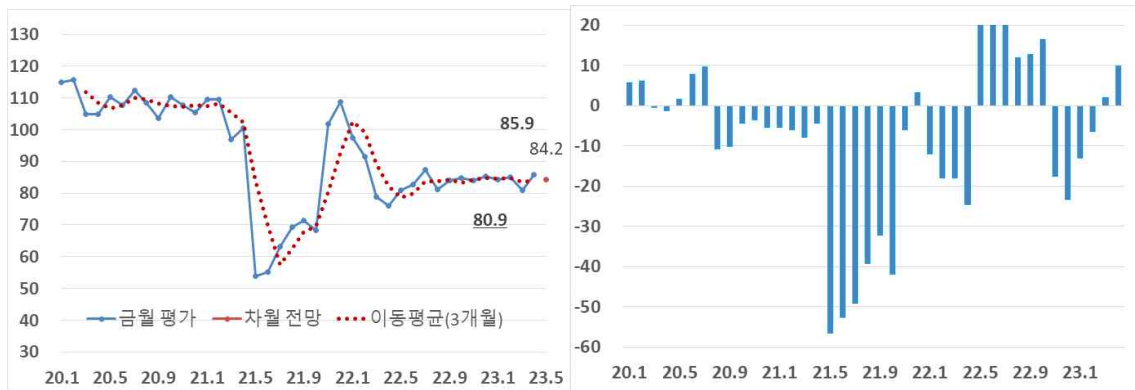
5 건설장비 수급지수 (장비임대료, 장비수급)

장비임대료지수와 장비수급지수는 모두 개선

- 장비임대료 경기실사지수는 62.7(58.4→62.7)로 전월 대비 개선되었지만(+4.3p), 차월(64.4)의 추가적인 개선이 전망되지는 못했음(+1.7p). 또한 착공 현장 등이 줄어드는 만큼 즉 건설장비의 수요감소도 조사 결과에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수도권(61.7→73.9)은 전월 대비 큰 폭의 개선을 나타낸 반면(+12.2p), 지방(57.3→58.8)은 전월의 수준이 유지됨(+1.5p).
- 건설장비수급 경기실사지수는 85.9(80.9→85.9)로 전월 대비 개선되었지만(5p) 현격한 수준의 변화는 아님. 또한 장비수급의 문제는 각 지역의 현장 상황 등에 따라 응답 결과가 달라진다는 점을 주의해야 함.
 - 수도권(87.2→93.5)은 전월보다 개선(+6.3p), 지방(78.6→83.2)도 일부 개선된 것으로 집계됨(+4.6p).

〈표-5〉 건설장비수급 지수 (금월 평가와 차월 전망)

구 분		총 합		지 역			
		금월	전년 동월	수도권	지방	서울	광역시
장비 임대료 체감	2023년 4월 평가	62.7	38.2	73.9	58.8	70.0	73.0
	2023년 5월 전망	64.4	44.6	73.9	61.1	70.0	71.4
장비수급	2023년 4월 평가	85.9	76.0	93.5	83.2	90.0	96.8
	2023년 5월 전망	84.2	71.7	89.1	82.4	83.3	93.7



〈건설장비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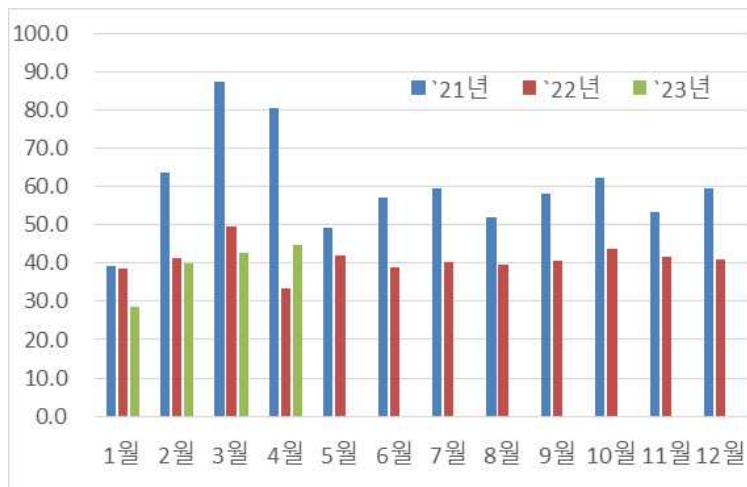
〈건설장비수급 증감(전년 동월비)〉

참고: 2023년 4월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 요약표

구 분		총 합		지 역				
		금월	전년 동월	수도권	지방	서울	광역시	
전문건설업 경기	금월 평가	44.6	33.5	45.7	44.3	33.3	52.4	
	차월 전망	52.3	40.3	56.5	50.8	50.0	62.9	
공사물량	원도급 수주	금월 평가	48.0	65.2	47.8	48.1	36.7	50.8
		차월 전망	59.3	63.9	76.1	53.4	66.7	63.5
	하도급 수주	금월 평가	50.3	58.8	65.2	45.0	50.0	55.6
		차월 전망	58.2	57.1	69.6	54.2	60.0	61.9
자금사정	공사대금 수금	금월 평가	60.5	63.9	56.5	61.8	53.3	68.3
		차월 전망	61.0	63.9	65.2	59.5	60.0	74.6
	자금조달	금월 평가	57.1	61.8	52.2	58.8	46.7	66.7
		차월 전망	59.9	61.8	58.7	60.3	53.3	71.4
건설 기능인력	인건비 체감	금월 평가	52.5	37.8	39.1	57.3	30.0	66.7
		차월 전망	56.5	46.4	52.2	58.0	40.0	63.5
	인력수급	금월 평가	66.7	55.4	54.3	71.0	50.0	76.2
		차월 전망	66.1	57.9	50.0	71.8	36.7	76.2
건설자재	자재비 체감	금월 평가	43.5	15.0	45.7	42.7	36.7	63.5
		차월 전망	51.4	21.0	58.7	48.9	50.0	63.5
	자재수급	금월 평가	76.3	47.6	71.7	77.9	66.7	82.5
		차월 전망	75.1	51.1	65.2	78.6	56.7	84.1
건설장비	장비임대료 체감	금월 평가	62.7	38.2	73.9	58.8	70.0	73.0
		차월 전망	64.4	44.6	73.9	61.1	70.0	71.4
	장비수급	금월 평가	85.9	76.0	93.5	83.2	90.0	96.8
		차월 전망	84.2	71.7	89.1	82.4	83.3	93.7

주1: '전체' 지수는 '수도권'과 '지방'을 합산해서 산출.

주2: '광역시'는 6대 광역시(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



〈최근 3년간의 SC-BSI 비교〉